

### 한형조 무문관 탐방

44

#### 남전의 친절

"남전화상에게 어느 승이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 설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

"나 해가 말한다. "남전은 이 질문을 받고 가진 것을 몽땅 써 버렸다. 칠칠치 못하게 소리."

"송하여 가로되, "지나치게 친절하면 네 덕을 잃는다. 말없음 속에 진짜 공덕이 있다. 푸른 비다가 뽕나무밭이 되더라도, 너를 위해 일러주지 않으리."

不是心佛 南泉和尚, 因僧問云, 還有不與人說底法麼. 泉云, 有. 僧云, 如何是不與人說底法. 泉云, 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無門曰, 南泉被者一問, 直得盡家私, 郎當不少. 頌曰, 摸君德, 無言眞有. 任從滄海變, 終不爲君通.

남전(南泉 748~834)은 벌써 세번째 등장하고 있다. <무문관>에서 그가 차지하는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처음 동서 양당이 교양이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고양이에게도 불성이 있을 까?" 이 소식을 들은 남전이 대중들에게 적절히 대답을 요구했다. 다들 더듬고 어눌해지고 있다 남전은 다름의 근원인 교양이를 갈라버렸다. 아픔의



그림 · 이준석

섭에게 꽃을 든 소식이나,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물은 육조의 다그침과 같은 것이다. 인도에서 태동하고 발전하여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나름의 독자적 전통을 구축했다. 이들 교학의 세 삼대기(三藏) 너머에 또 다른 격의의 가르침이 있는가. 있다면 너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백장의 추궁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 남전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게 무엇이라는 백장의 물음에 남전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게 미진했던지, "대체 그것은 어떤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대답은 스승 마조의 설법과 연계되어야 이해될 수 있다. 마조는 모든 언설이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종이돈은 필요없다. 그런데 증생들이 울고 있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세상에 부대끼며 무지에 기인한 고통에 울고 있다. 마조는 인간의 속 깊이에 있는 정신의 비밀을 일러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곧 부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 또한 방편이긴 마찬가지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 모든 방편은 그 반대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부처는 먼저 깨우친 사람이고, 나는 나중 깨우친 사람이니 부처와 나

## "몸의 소리 듣고 마음 챙기자"

미국에서 한때 정자(精字)은행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 이 논쟁은 윤리 문제로 확산돼 과학자와 여성운동가들 사이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때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했던 미 하버드대학의 조지 왈드(George Wald)박사는 "윤리의 문제로 포장된 이 논쟁의 근원에는 광범원에서 뛰어난 윤리를 얻고자 하는 탐욕, 창조한 인간에게 느끼는 두려움, 타인의 육체를 빌리고 싶은 뒤떨린 사람 등 그릇된 감정이 숨어 있다"며 두 진영을 다 비난했다. 왈드박사는 바로

### 정견 ③

인간의 무명(無明)을 지적한 것이다.

무명의 세계에서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집착과 격정의 굴레에 얽매인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만을 원하며 욕망을 따라 갈 뿐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란다. 안락과 쾌락을 계속 맛볼 수 없으면 상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치밀어 불행을 초래한다.

사람의 생각이 감각대상만을 좇아 간 까닭이다. 생각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나 생각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의 상태에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책 · 콘필드가 쓰는

3

서 마음은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알아차리고(正知) 자각(自覺)할 따름이다. 보통의 경우 감각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그 대상에 관해 생각하고 속고하고 분별하고 근심한다.

명상 수행은 세간에 앉아, 즐거움

눈으로 남아있는 음식을 볼 때 "그래! 음식이 남아있잖아. 더 먹자"고 생각한다. 우리가 몸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육체의 물리적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첫 덕목인 '지혜로운 위치'이다. 이것은 즐거움과 고통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저없이 감정(소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욕망만 따라가면 불행 초래 감각대상 '관' 하면 지혜생겨 좋고 싫음 변해... 집착 놓아야

과 고통에 집중하고 소란스러움과 고요함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관계를 관(觀)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몸, 에너지, 소리 등을 정념(正念·마음챙김)하고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를 생각해 보라! 위장(胃腸)이 "충분히 먹었어"라고 처음으로 포만감을 나타내면 혀는 "글쎄, 과일 맛이 좋는데"라고 음식 맛에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분은 인식의 판단을 하지 않고 몸과 감각의 소리를 들으면 윤회와 무상(無常)의 법칙을 알게 된다. 지혜로써 삼라만상의 변화를 본다. 지혜는

명상을 하는 동안 감각적 대상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애초부터 감각적 대상과 접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자는 그 대상에 따른 집착하고 때론 벗어나고

자 안간힘을 쓴다. 그 바람 자체가 욕망이다. 욕망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이 세진다.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감각의 대상과 접하게 되면 다만 속고할 일이다.

수행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상으로 얻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대상을 꼭 잡으려는 한다면, 그 집착의 꼬리를 물고 고통이 엄습한다. 이때 좋고 싫음 등을 지켜보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다시 찾아온다.

불교의 수행과 가톨릭의 관상(觀相)을 깊게 연구했던 미국인 신부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에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도, 수행자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상호관계에서만 존재할 뿐, 자신의 집착에서 살 수 없다는 불교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수행자의 초상을 찾을 수 있다. 수행자는 빛, 어둠, 위, 아래, 즐거움, 고통 등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현실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명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 "찾으려하면 길을 잃는다"

모든 언설은 우는아이 달래는 종이 돈

자비런가. 나중에 조주가 돌아왔다. 남전이 대답을 요구하자 조주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다. 남전은 그때서야 고양이의 죽음을 애도했다.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목숨을 부지했을 것을."

두 번째는 조주의 질문에 관한 것이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남전은 "평상심이 곧 도"라고 대답했다. 조주는 의아했다. "그거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이 없다. 스승이시여, 그곳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인가." 이 물음에 남전은 "찾으려 하면 길을 잃는다"고 대답해 준다. 진리는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않다는 것, 아는 것은 망령이고 모르는 것은 혼미인 바, 논리적 분석적 인지적으로 접근하면 길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이 말에 조주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의 화두는 과감히 생각되어 있다. (어느 승)이라고 젊은 이 사람은 남전과 동문이자 선의 규율을 제정한 백장(百丈)이기 때문이다. 뒷산의 여우를 만나 "인과에 어지럽지 않다"고 설하여 오백년의 어둠을 벗겨준 바로 그가 남전에게 친절한 질문을 던졌다. 백장은 남전보다 28세 선배로 서당(西堂)과 더불어 마조 아래 3제자이다. 백장의 물음은 선의 근본을 겨누고 있다. 그것은 석가가 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자만하는 선자들이 있다. 이것은 긍정적 어법의 폐단이다. 그래서인지 마조는 자신의 언어를 수정한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 도시 종잡을 수가 없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입체에서 평면적 진술, 긍정이나 부정의 진술로는 다 드러낼 수 없다. 공성이 옹고 하고 그르기도 하다. 아니 진리는 그 양 극단을 벗어난다. 그래서 중도(中道)이다. 남전은 거기에 다시 한 마디를 덧붙인 것이다. "그것은 도시 일정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 파악될 수 없다."

남전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여기서 몽땅 써 버렸다.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해제는 남전이 너무 성급했다고, 혹은 경솔했다고 질책한다. 마지막 말은 아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약은 독이므로, 또 언어는 아무리 위대해도 실재는 아니므로, 지나치게 친절함으로써 남전은 허물을 남겼다. 해제는 자신 같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한 바다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자상한 고구정령은 삼갔을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고 노파심이라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와 수학

47

#### 변화의 원리

김용운

불교의 기본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서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그 첫머리의 제행무상(모든 것은 무상하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이 구절이었다.

'부모도 변하며 너도 변해간다.' 언저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어머니의 말은 무섭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처음엔 무상(無常)이라는 말이 감성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과학)적 지식을 얻고 난 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1초간 3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 또 이 태양 지근도 태양 근처에 있는 다른 별에서 본다면 매초 20km의 속도로 헤라클레스 성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 부근에 있는 별들도 은하수 전체의 회전운동에 따라 움직이고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2

있는 것이다. 그 속도는 매초 300km로 계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주 공간은 변치도, 움직이지도 않는 중심조차 없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대지로 생각되어 왔던 이 지구상의 한 부분은 한 순간 사이에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17세기의 갈릴레오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공간 모든 방향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분포되

이지 않고 있을 때도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상의 인간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크기가 인간의 척도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아침 해는 올라오고 저녁해는 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지구 자전을 파악할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체내의 갖추어져 있는 시계의 하루가 약 25시간인 것은 달의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 옛날 지구에서 처음 생명이 탄생한 곳은 원초의 바다였다. 생명체는 바다 간의 주기이자 달의 주기와 리듬을 같이 해서 진화해 왔다. 신비스럽게 달의 기억이 우리 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이 자리를 잘 때 확고부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느끼는 25시간의 리듬은 우주 공간 전체의 움직임의 의식하지 않은 채 지구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구 탄생 이래의 길고 긴 세월 동안 인간은 근대 과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성으로나 몸으로도 우주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석가모니의 시대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직관으로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불안을 달래는 데서 불교가 출발했다. 어린 마음에 몸시도 불안했던 이 사실이 과학 지식으로 확인할 때 오히려 그렇기에 인생은 어떤가의 의미를 묻게 된다. 그것이 나의 불교 입문의 계기였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우주공간에 변하지 않는것 없어 불교철학 '諸行無常' 가르침 설파

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 사실은 곧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핵융합은 은하수의 분포에도 중심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제 과학은 우주의 어디에도 중심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구 자신도 자전(自轉)함으로써 그 위에 사는 인간에게 '하루'의 개념을 주었고, 그것을 24시간으로 쪼개어 시간의 단위를 생각해 왔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우리는 매초 300m의 속도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

수 없다. 하루 24시간을 정하고 생활하는 사이에 어느새 인간은 그 리듬에 익숙해진다. 오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지구의 자전에 적응할 수 있게끔 되어 버린 것이다. 어림으로 인간의 체내의 25시간 단위로 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달의 운행과도 같다.

달은 매일 밤마다 약 한시간 정도 빠르게 자리를 옮기고 있다. 지구는 그것을 뒤쫓는 것처럼 동쪽으로 자전하고 다음날 이동한 달이 머리 위로 오는데 25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이 바닷물의 간만의 주기와도 일치한다. 여성의 주기도 거의 달 주기와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뜸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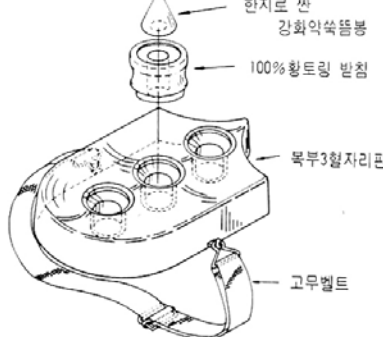
## 건강 長壽 쑥뜸기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안 3개요점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안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안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보급가격 : ₩ 130,000 ●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1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